



空士總同窓會報

發行人：朴 鎔 泰

編輯人：姜 容 求

(住所)：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新吉 7洞 1178番地 (郵便)：150-057 (電話)：02-845-1090 (FAX)：02-845-1091 (非賣品)

星武人이며! 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

東西古今을 莫論하고, 우리 人類가 追求해 온 한결같은 價値는 幸福의 實現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人은 幸福을 追求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있어 한다고 믿고 돈벌이에 熱心인가하면 또 다른 人은 높은 社會의 地位가 幸福을 가져다준다고 믿고 出世하여 名譽를 얻는데 온 力을 다 바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人은 幸福을 實現하기 위해서는 돈과 名譽보다는 健康이 第一이라고 強調하는 人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과 名譽와 健康은 幸福을 實現하는데 必要한 條件은 될 수 있을지언정 充分한 條件은

에서 이 世상의 加난하고 病들어 苦痛받는 人들을 위해 一生을 獻身했던 '테레사 修女'가 享年 87歲로 他界하셨을 때는 世界 人들이 哀悼하는 光景을 TV를 통해 보았습니다. 全世界 人類가 人種과 宗教를 超越해서 그녀의 죽음을 哀悼하는 光景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示唆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人성과 犧牲精神이 있었기에 이 世상의 加난하고 病든 많은 人들이 慰安을 받고, 幸福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테레사 修女'가 人의 實踐運動을 펴기 위해 만든 '사람의 眞教育會'는 지금 全世界 126個國, 600餘個所에서 4,000餘名의 修女

는 明明하고 健全하며 眞正한 幸福이 實現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星武人 모두 人으로서 一심되어 이 世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燈불이 되어 줄 것을 간절히 所望하면서 먼저 우리 星武人 相互間에 人을 바탕으로 友誼와 親睦을 더욱 敦篤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獨逸의 心理學者 '엘리푸름'은 그의 著書 'The art of loving'에서 "사람이란 너와 내가 하나되려는 努力이다."라고 定義하고 너와 내가 하나되기 위한 努力으로 相互間에 關心과 理解와 尊敬과 責任 네 가지란 強調하고 있습니다.



- 會長 朴 鎔 泰(공사 5기)
- 空軍(豫)少將
- 아시아나항공 상임고문

첫째, 人이란 相對方에게 關心을 가지려고 努力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無關心은 人의 最大 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世상의 疏外階層과 不遇한 이웃에게 더 많은 關心을 기울이고 溫情을 배풀려고 努力한다면 우리 社會는 아름다운 人의 絆이 움틀 것입니다.

둘째, 人이란 相對方을 理解하려고 努力하는 데서 生成된다는 것입니다. 이 世상의 모든 不和의 根源은 相互間의 理解 不足에 基因한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自己利益 中心의 思考를 버리고, 相對方의 處地를 理解하려고 努力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相對方에게 잘못이 있을 때 이를 誹謗하거나 責難하기보다는 잘못을 容恕하고 寬容으로 감싸준다면 우리 社會는 和善한 人情과 人情이 充滿한 社會가 될 것입니다.

셋째, 人이란 相對方을 尊敬하려고 努力하는 過程에서 더욱 敦篤해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人間은 아무리 못나고 추해도 모두 하는능력에서 지으신 最上의 傑作品들이며 하느님께서 個人에게 주신 人格과 個性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人의 價値觀과 人格을 尊重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人이란 自己에게 賦與된 責任을 다하려고 努力할 때 아름답게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으며 人類共同體社會에서 한 構成員으로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사는 存在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被害를 끼치지 않도록 社會의 規律와 倫理와 道徳을 지켜야 할 責任이 있으며 또 나 혼자만 잘 살기보다는 不幸한 이웃사람과 더불어 잘 살도록 이웃을 도와주어야 할 責任을 賦與받고 있음을銘心해야 할 것입니다. 眞正한 幸福이 旺盛한 社會는 人이 넘치는 건전한 社會입니다.

우리는 空軍士官學校를 卒業한 星武人입니다. 우리의 울바르고 착하고 善한 言行은 母校의 同門을 빛낼 뿐만 아니라, 우리 同門들을 尊敬받게 만들지만 不正하고 不義한 일을 저질렀을 때는 우리 星武人 모두를 指彈받게 만듭니다. 나로 말미암아 母校와 同門들의 名譽에 損傷을 입히지 않도록 하겠다는 最小限의 責任意識을 가지려고 努力할 때 우리의 友誼와 親睦은 더욱 敦篤해 질 것입니다.

우리는 젊음을 祖國과 겨레와 하늘에 바친 護國의 干城이었음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이 매달라 病든 이 社會에서 우리 모두 人으로서 一심되어서 우리 社會가 幸福이 가득한 살맛나는 社會가 되도록 앞장설다.

독일의 심리학자 엘리푸름은 그의 저서에서 사랑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노력. 너와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은 상호간의 관심·이해·존경·책임을 강조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돈과 名譽와 健康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幸福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돈이 없어 加난할지라도 社會의 地位가 낮아 賤待받을까봐도, 그리고 몸이 病들어 苦痛받고 있을지라도 사람이 있는 곳에 慰安과 平康과 歡樂이 있고, 여기에 眞正한 幸福이 있기 때문입니다. 聖經말씀에 '사도바울'은 "사람이 豫言하는 能力이 있어 모든 秘密과 모든 知識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고린도 전서 13장)."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財產을 所有하고 있고, 또 높은 學識과 偉大한 能力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결코 幸福해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9月 印度 캄캄타

와 數 많은 自願奉仕자들이 오늘도 加난하고 病들어 고통받는 人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社會가 眞正으로 幸福을 누릴 수 있는 살기 좋은 社會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이 充滿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우리 社會는 각 種 급격한 事件과 참혹한 事故가 連發하고 있어 우리를 不安과 焦燥과 恐怖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젊은 姪姪들이 돈 때문에 어린이를 誘拐하여 殺害하는가 하면, 來日의 꿈이요, 希望인 青少年들이 遊樂費를 마련하기 위해 殺人을 아무 거리낌없이 恣行하는 素戔無한 世상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 社會가 이와 같이 素戔無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 우리에게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社會에 사람이 充滿할 때 우리 社會

고, 둘째 젓가락질을 해야 하며, 셋째 붓글씨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자는 표의의 문자이기 때문에 뜻이 많으며 젓가락질은 人의 技能을 발달시키고 머리가 좋

에서 3연패를 한 후 경제대국이 됐다. 그런데 우리는 국제기능올림픽에서 11회나 제패됐는데도 '왜 이 모양이냐'하는 의문이 간다. 그것은 정치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21世紀 東方의 빛 코리아

아지며 붓글씨를 쓰다보면 人의 心성이 융통성이 생겨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독일이 2차대전에서 패하고 국제기능올림픽에서 3연패를 하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했고 일본은 독일의 모방 국제기능올림픽

우리나라가 만 22세 이하 젊은 이들이 모여 기능 수준을 겨루는 국제기능올림픽에서 통상 11회이나 우승을 차지한 것은 젓가락 덕분이라고 한다. '97년 7월 스위스 상갈렌에서 열린 제34회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대회에 이어 또다시 정상

차지했다.

1967년 제16회 대회에 처음 참가한 우리나라는 제17회 대회 때 금메달 4개로 3위를 해 참가국들을 놀라게 했다. 19회 3위, 21회 2위, 22회 2위를 기록하며 1971년 '77년에 열린 23회 대회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였다.

그로부터 1991년의 31회 대회까지 9연승을 기록해 한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대만에서 열린 32회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나 33회 대회에서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했고 금년 34회에서 또다시 우승을 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19회 참가하여 우승 11회, 2위 3회, 3위 2회, 총 16회 입상했다.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21세기에 동방의 빛으로 빛날 것이다.

星武台

세계 석학들은 다가오는 미래 21세기를 「리더」할 수 있는 민족 집단이 어느 민족인가 하는 호기심 있는 연구를 하여 발표된 바가 있다. 유교문화를 경험한 민족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과거 농경사회의 중심은 종자, 즉 씨앗이고 오늘날 산업화 사회에는 기계, 즉 컴퓨터, 로봇 등이고 다가오는 정보화 사회의 중심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학, 곧 유교라는 것이다.

그런데 유교문화를 경험한 민족이라 하더라도 다음 3가지 조건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 그 조건은, 첫째 한자를 사용해야 하

母校의 명譽를 빛낸 朴雄鎭 詩人



朴 雄 鎭(공사 4기)
· 한국 월정문인협회 회장
· 시인

지난 10월 30일에 옛 공군사관학교가 자리잡고 있었던 서울시 보라매공원에서 박웅진 시비 제막식이 있었다. 6·25 전쟁이라는 절박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청운의 뜻을 품고 공군사관학교 4기생으로 입교한 것이 었그제 같다고 하는데 벌써 47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한다. 시비 제막식에 참석한 내빈들 앞에서 한 인사말이 감회가 깊었음은 물론 주마등처럼 지나간 세월들 앞에서 웃소매를 여기도 있었다.

그날 박웅진 시인은 충북 청주에서 三選 국회의원을 지내신 박근우 선생의 장남으로 태어나 생도 생활 시절에도 피폐, 하이네, 바이론 등 세계 三大詩聖의 詩를 거의 암기할 정도로 많이 읽었다. 중고등학교 때도 교내 백일장에서 장원을 하는 등 일찍부터 그 소질이 남다른 데가 있었다. 입관 후에도 공군에서 발간되는 신문과 잡지에 많은 시를 발표했고 대전, 부산, 광주, 대구 등 정훈참모로 근무하던 곳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에 시작품 발표를 꾸준히 해왔다.

박웅진 시인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이 되자마자 일찍이 사회로 진출하였다. 부친의 대를 이어 정치에 뜻을 두었지만 경제적 뒷받침이 불가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활안정과 더불어 여유있는 장래를 기약하기로 했다. 사업에 뛰어들어 노력과 집념은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후 국제라이온스협회 회원이 된지 전

개가 없는 최단기간 내 서울지구총재라는 어려운 자리에 경선을 하여 선출될 수가 있었다. 내노라하는 사회유명인사들로 구성된 라이온스인맥과 학맥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단순한 군 출신으로서 명함도 내밀기 힘든 그곳에서 총재가 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라고 들었다. 총재 임기 중에는 실로 괄목할만한 목적사업을 설정하여 회원이들 운동에 전격하고 이를 완수함으로써 미국 시카고에 있는 국제라이온스협회 회장으로부터 지구총재 지도력 개발상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학창시절 전국 웅변대회에 입상한 경력도 있어 한국화술교육회 총재로 추대되기도 하였다. 총재 재임 3년동안 웅변인 양성을 위한 話術法 보급과 전국 웅변대회를 주시하며 화술발전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힘써왔다. 또한 중국 연변에도 화술교육을 만드는데 화술이라는 보다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위선양과 국내외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크게 공헌한 바가 박시인은 그동안 받은 상패, 감사패, 훈장 등이 300여점에 이른다고 밝혔는데 얼마나 넓은가를 짐작하게 한다.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91년도에 들어와 본격적인 詩作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일반대학 국문학과에서 배우는 창작법이나 詩論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실로 自生的으로 태어난 들꽃처럼 외로운 고독과 싸우는 詩人으로 태어났다고 한다. 학맥이나 인맥이나 스승도 없이 유일하게 태어난 詩人이다.

1,200여편의 시를 써서 15권의 시집을 발간하여 한국 문단사상 경이적인 창작활동을 남기기도 했다. 그리고 4개월간 종합문예지에 연재시를

했으며 '95년도 KBS가 선정한 신가곡 「강변마을」을 作詩했을 뿐만 아니라 한양천도 600년에 즈음하여 「北山에 올라」 권두시를 서울 시민신문에 게재하기도 하였다. 특히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쓴 기행시 중에는 「백두산에 올라」라는 장시를 발표하여 민족시인으로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오직 총서로서로 읽었던 박시인은 들에 피어있는 들꽃이 되어 모든 비바람과 눈을 맞으며 自力的 창작활동을 터득하였다. 박시인은 그동안 서정시, 조병화, 황금찬, 기규동, 김광림, 박태진, 박재삼 시인 등 원로들과 만나 친교하면서 시집마다 서문을 받는 등 詩力を 키워 왔었다. 한편 윤병로(성균관대 문과대학장), 윤준희(울산대 문과대학장), 구인환(서울대 국문학과교수), 권일승(한국현대시학회회장), 김광림(한국시학회회장), 김양수(교수, 문학평론가), 박이도(경희대교수, 문학평론가), 김남석(교수, 문학평론가), 문학평론가인 이용호, 전

도 했다. 그리고 T.S.Eliot의 詩를 연구하여 문학평론으로 등단하기까지 뼈를 깎는 노력은 물론 행성동과 사상의 경험적 감성으로 구성된 詩世界를 이해하는데 일가견을 가지게 되었다. 詩人이란 무엇인가 색깔과 개성을 창출해 내는 人間의 내면적인 세계를 관찰하는 내면에서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 다. 이후 미국 퍼시픽웨스턴대학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영속하기에 이르

러 한국문단발전에도 커다란 공헌을 그어 놓았다. 시, 시조, 수필, 소설, 희곡, 아동, 평론 등 모든 문학 장르가 참여하고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 발전하게 될 이 협회는 정기적인 시낭송회, 지역단위 백일장, 국내외 문학세미나, 문인들에 대한 문학상 제정 등 목적사업을 설정하고 밀고나갈 모양이다. 특히 박시인이 지향하는 「순수시를 향한 자연적 동화」라는 모토는 문단의



광화문 종합청사 뒤 적선 현대빌딩 야외공원에 1996년 10월 30일 건립



1997년 10월 30일 서울 보라매공원에 세워진 시비 앞에 앉아 있는 박 시인

기철, 문재만 등 기려선 같은 평론가와의 교류를로부터 박시인이 쓴 시집마다 詩評을 받기 시작했다. 1997년 10월 25일 박웅진 시인은 한국월정문인협회 회장에 취임함으로써 새로운 연구과제로 설정되어야 할 커다란 이슈로

(3면 계속)

命峰 朴雄鎭 詩人 略歷

- 공군사관학교 졸업(4기)
- 미국 일리노이주 맥켄드러대학 명예경영학박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퍼시픽웨스턴대학 명예문학박사
- 한국 월정문인협회 회장(시인, 문학평론가)
- 총주 吉林長白大學 客員教授
- 서울연희대 라이온스클럽 회장 역임
- 서울영등포대 임원 이사장 역임
- 재단법인 라이온스 장학재단 이사장 역임
- 사단법인 한국 화술교육회 총재 역임
- 국제 라이온스협회 309-J(서울)지구 총재협의회 부의장 역임
- 한국연예정보신문사 상임고문 역임
- 한국언론정보학회 상임고문 역임
-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역임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장 역임
- (주)일신화학 대표이사장 및 경영 20년간 역임
- 세계평화대상 수상, 국제우호친교상 수상, 충청문화상 수상
- 제1회 순수문학상 수상, 국제아카데미 문화대상 수상
- '95년도 KBS 신가곡 선정, 「강변마을」 作詩
- 저서 수필집 「나뭇잎 장미의 피어오름」
- 시 집
 - 1 시집 「달빛에 취한 박꽃」
 - 2 시집 「바람의 여울터에 잠이 드는가」
 - 3 시집 「가을이 시를 쓴다」
 - 4 시집 「남자의 방」
 - 5 시집 「길목의 숲 환관」
 - 6 시집 「노기애 미 있는 성」
 - 7 시집 「대개 무엇이 남았는가」
 - 8 시집 「푸른 물결의 그림자」
 - 9 시집 「과도」
 - 10 시집 「아가야, 참을음을 얻어 두렴」
 - 11 시집 「또다시 나무가 되어」
 - 12 시집 「枯死木에 핀 나팔꽃」
 - 13 시집 「山茶花 피던 자리에」
 - 14 시집 「소리보다 빛으로 오시는 이여」
 - 15 시집 「길은 먼데도」 등 1,200여편의 시를 썼음.

평론 문학평론, 시 해설사 두수

(2면 이음)

제기되고 있다 한다.
1996년 10월 30일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종합청사 뒤 적선현대빌딩 야외공원에 위치한 박용찬 시비 제막은 문화적, 정신적 유산이 빈약한 오늘의 현실을 감안할 때 커다란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했다. 우선 대리석과 오석으로 구성된 시비의 설계가 예술적 조각을 상징하게 하였고 한국사에게 태두인 원곡 김기승 박사의 題字와 강원 이상우 선생의 사문의 글씨 또한 역사적으로 의미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작

품이다. 과학기술처장관을 역임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으로 있는 김진현 박사가 시비 건립위원장이 된 이 시비의 시 제목은 「꿈 한자락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연 「허름한 꿈 한자락/기다리게 해 놓고/어둠을 사뤼먹은 별빛은/안개 속에서/서툰거린다」 2연 「행복이 오라해도/갈이없어 못가는데/이승박을 들고있는/한세월의 숲덤/이면 불빛 그리움으로 묻힌다」 3연 「마시건의 검질들이/아직도. 나를 밝고 외길로가네」 이상이 순차이다. 이 작품은 읽고 또 읽을 수밖에 없는 무한

한 감성의 파력을 지니고 있어 감상자 스스로가 이 작품의 전개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우수한 명작이라고 박이도(경희대, 문학학평론가) 교수가 시평을 내렸다. 그리고 두번째 박용찬 시비가 세워진 보라매공원의 「시비는 건립하기까지 2002년 월드컵 부지로 논란이 있었고 아무나 시비를 허락할 수 없다는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박시인이 참여한 사회적 활동의 역경과 높은 詩力を 감안하여 승인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시비는 서울특별시 공원녹지 관리사업소와 월간문예지인 문학세계 그

리고 「박시인아, 회장으로 있는 한국월정문인협회가 공등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진 값진 문화적인 유산으로 작품자체가 조금도 손색이 없다는 문단 원로들의 칭송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번엔 제막된 시비의 제목은 「씨는 자라서 하늘이 된다」이다. 내용은 1연 「월리 바라다 본다/시선이 머무는 곳에/마음의 문을 열고/허름한 꽃씨 하나 심는다」 2연 「씨는 자라서 산이 되고/물이 되고/나무가 된다/그리고 바람과 구름이/머물다가 갈/정갈한 나의 집이 된다」 3연 「더

멀리 바라다 본다/시선이 머무는 곳에/마음의 문을 열고/허름한 꽃씨 하나 심는다」 4연 「씨는 자라서 하늘이 된다」 이 작품은 무한한 우주공간과 신비로운 자연의 조화로운 메타포어를 연결시켜서 인간의 내면적인 시세계를 조명하였다고 한다. 4차원적인 하늘은 우리 공군의 상징적인 날말인데 이는 공군사관학교가 있었던 보라매공원과 통화될 수 있는 환타지를 그려 낸. 역동적인 작품이라고 박시인은 말하고 있다.

<6期 姜容求 記>

母軍短信



작품으로 승화된 것으로서 호국 디자인 등 5개 부문 120여 점의 문예작품이라 할 수 있다. 작품은 한국화, 서양화, 서예, 사진, 시각



第12回 空軍陣中創作 作品 展示會 開催

공군은 9월 26일에서 29일까지 4일간 李光學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공군 주요 지휘관 참모들과 충남도지사 및 대전시, 대전시 의회위원장 등 대전 충남지역 기관장 및 언론계, 문화예술계, 교육계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공군진중창작전을 개최하였다.

- 이번 전시회는 바쁜 병역생활 속에서도 자신에게 내재된 예술적 감각을 틈틈이 여가활 이용,

空軍戰蹟碑 追慕行事 開催

지난 10월 24일 강릉경포대에 6·25 당시 항공작전 중 전사한 용사들의 영복을 비는 공군전적비 추모행사를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공군참전군인회와 강릉시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특히, 강릉지구는 지난해 9월 18일 무량암수혈이 침투한 전술적 요충지역으로 민·관·군의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북한공산정권을 규탄하는 대외도 가졌다.

期別動靜

사봉회(4기)

▶ 지난 10월 30일 옛 공군사관학교가 자리잡고 있었던 보라매공원에서 朴雄鎭 同門의 詩碑除幕式을 가졌다. 朴雄鎭 同門은 작년 10월 30일에도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종합청사 뒤 적선현대빌딩 야외공원에 詩碑를 建立한바 있다. 정신적 정서가 매달라가는 서울 시민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될 것이다.

▶ 朴雄鎭 同門은 지난 10월 25일 한국월정문인협회 회장에 취임. 한국월정문인협회는 詩, 詩調, 隨筆, 小說, 희곡, 아동문학, 평론 등 문학의 총집합 모임이다.

▶ 韓英奎 同門께서 지난 10월 6일 三聖의료원에서 宿患으로 作故, 葬禮는 5日葬으로 大田 國立 顯忠院에 안葬, 眞心으로 故人的 冥福을 빈다.

운 것은 事情때문에 故人이 平生 願하던 國立顯忠院에 모시지 못한 점을 罪스럽게 생각하며 故人의 冥福을 빈다.

- 許光鮮 母親喪 6月 15日
- 高慶達 母親喪 7月 22日
- 李炳櫻 父親喪 10月 30日

일성회(6기)

▶ 젊어서는 조국의 하늘을 지키다가 나이들어 전역 후 사회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정열을 불태우고 이제는 환갑의 나이를. 健康管理의 親睦을 도모하기 위해 月1回 어떠한 일이 있어도 GOLF 모임을 갖고 新村里와 水原을 오고가며 하루를 즐겁게 지남으로써 母喪의 消息과 近間 社會生活를 통해 경험했던 情報를 相互交換하여 자기 생활에 活力을 불어넣고 있으며 月 2回(둘째 火曜日, 넷째 火曜日) 食道樂을 위해 모이며 이때는 長安의 名家나 在京地域의 새로운 食文化를 찾아 風流를 즐기고 있어 나름대로 보람을 만끽하고 있다.

- ▶ 空軍將校 未亡人의 모임인 은 나래의 金一封 贊助
- ▶ 한해를 마감하는 送年會를 12月 17日 空軍會館에서 開催
- ▶ 慶弔 事

신성회(5기)

▶ 訃告 黃敬一 同門께서 지난 5월 23日 三聖의료원에서 宿患으로 作故 葬禮는 5日葬으로 坡州 天主敎 個人墓地에 안葬, 哭內 아쉬

- 安成基 子 結婚 9月 6日
- 孫正瑞 子 結婚 12月 6日
- 金元根 子 結婚 12月 30日
- 李相宗 婦 人 喪 11月 5日

- 이종양 子 結婚 12月 7日
- 박상철 母親 喪 9月 4日
- 남승연 母親 喪 10月 5日
- 민합식 丈 母 喪 10月 20日

은하회(6기)

- ▶ 送年會 12月 9日 空軍會館
- ▶ 崔麗鍾 子 結婚 12月 18日
- ▶ 崔一永 女 結婚 12月 26日

봉우회(17기)

▶ 금년 8월부터 수시로 봉우회 소식을 발간하여 회원간의 소식을 전하고 공지사항도 전파하여 회원간 보다 든든한 인간관계가 유지되고 앞으로 많은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모교 복지단의 배려로 금년 후반기부터 골프모임을 가질 예정이오니 뜻이 있는 회원님들은 많은 참석바랍니다.

그리고 동기생 회원들의 정기모임을 매월 17일 공군회관에서 갖기로 하였습니다.

- ▶ 慶弔 事
 - 황찬번 동기생이 대한항공 기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 김윤태 父親 喪 6月 9日
 - 박윤교 父親 喪 7月 23日
 - 황창건 父親 喪 8月 16日

은성회(12기)

▶ 은성회는 주로 골프모임(구우회)을 착실히 운영함으로써 "OUT OF SIGHT, OUT OF MIND"를 극복하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매달 한번씩 각 기생별로 배당되는 골프모임은 물론 원만한 국경일은 모교의 할애를 받아 우정을 돈독히 하고 있다.

- ▶ 배양일(전 공군참모차장) 동기전역식이 지난 7월 30일 계몽대 연병장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동기생 22명(동기생 부인 포함)이 참석하여 38년간 오직 조국에 대한 애국심과 공군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의 열정을 기리면서 배기순 동기생회장이 동기생회에서 수여하는 전역패를 전달하였다.
- ▶ 慶弔 事
 - 박창길 女 結婚 11月 5日
 - 이종득 子 結婚 12月 18日
 - 김규림 女 結婚 11月 21日
 - 정만중 子 結婚 12月 21日

웅비회(24기)

▶ 金榮直 同期生은 1997年 6月 1日附로 安企部 副理事官으로 昇進하고 또한 宋基侑 同期生은 9月 1日附로 國稅廳 書記官으로 昇進하였습니다.

WE ARE PLEASED
TO PROVIDE POWER
FOR THE
REPUBLIC OF KOREA,
PAST, PRESENT
AND FUTURE.



GE Aircraft Engines
We bring good things to life.



徐鎭泰(공사 8기)

· 中將(豫) / 政治學博士
· 前 空軍士官學校長

1. 서 언

지난 4년동안 문민정부는 사회 각 분야의 개혁과 더불어 국방행정의 선진화에도 기여하여 왔다. 문민화라는 것은 곧 민주화란 의미이고 민주화란 정부가 국민에게 군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인데 이것은 곧 국가의 정책이 숨겨져 있고(투명성), 뚜렷하고(公正성), 또한 모두에게 이(利)롭다(互惠性)는 것을 알리면서 이끄는 정치라는 뜻이다. 이것이 곧 법치(法治)이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업무로 말하면 국가 기밀과 군사 작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되도록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책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이제 그 동안 성역시 되어 온 국방정책에 관한 내용도 국방소식 같은 정기간행물이나 국방백서와 같은 대국민 연례국방정책보고서 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다. 비무장지대에 인근한 통제구역과 군 부대 주변에 출입제한 지역들도 상당부분 통제가 완화된 것이 사실이고 국방부 출입 기자단의 취재환경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개선된 것도 예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법령(Freedom of Information Act)과 같은 법적 근거도 머지않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여름 어느 일간지의 종단지같은 보도는 이와 같은 필자의 기대에 정면으로 여긔었다. 여담의 대통령 후보경선 3주 전인 지난 6월 30일자 동아일보 2면 중단에 실린 기사는 "통합군, 체제전환 20만명으론 갈군" 신한국 검토라는 제목하에 "신한국당 육·해·공군 60만규모로 편성된 현재의 국방체제를 20만명 규모의 '통합군' 체제로 단계적으로 갈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라는 내용과 함께 "우리의 대선후보가 결정된 뒤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바꾸고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국민에게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 하(2)> 이렇듯 중대대안사안을 신한국당에서는 정책위원회가 아니고 정보화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였다고 한다. 국가이익(國益)을 총체적으로 수호하기 위하여 수립된 국가대전략(大戰略)에 입각한 정책의 소안이 아니고 단순한 정보화 위기가 마련한 정보화 계획의 일환으로 "국방 및 안보 정보화"의 사업적 측면에서 현재 추진 중인 "5개 분야의 정보화전략방안"의 하나로 다루었다는 것이다. <보도 하(3)> 이것은 여처구 없고 실망스러운 사안이다. 문민시대의 국방정책은 모를지기 사안(事案)의 제기 자체가 서두에 잠시 언급한 대로 민주주의의 몇 가지 본질적 특성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필자는 국방정책(특히 공군적)의 전문가로서 그리고 지난 4년간 한·미 안보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예: 미국의 대한군사정책과 한반도 방위를 위한 한국군의 위상)을 학술적으로 탐구한 국제정치 학도로서 일간지에 보도된 "통합군" 안에 단호히 반대한다. 필자는, 직업군인 출신 공군전문가로서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의 국가 안보에 대한 우국충정에서, 거론되는 "통합군" 안에 대하여 투명성(透明性), 공정성(公正性), 호혜성(互惠性) 그리고 정치적 수락성(政治的 受諾性) 측면에서 부정적(否定的) 견해(見解)를 밝히고자 한다. <3>

2. '통합군' 용어의 올바른 인식

우선 '통합군'이란 용어를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통합군'이란 한마디로 요약하면 육·해·공 각군 참모총장의 독립적인 지휘에 병립되어 있는 현재의 3개 군을 하나의 단일 통수체제(統帥體制)(예: 가칭 "統合 참모총장")의 총괄지휘조직으로 "통합(統合)"한다는 뜻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체제상으로 말하면 3군제(三軍制)의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단일군"(單一軍)이라고 불려야 맞다.

國防政策의 透明性과 公正性(1)

一 軍 構造 논란의 不當性 一

미국의 태평양사령부처럼 미 육군(PACA : Pacific Army), 미 해군(PACFLEET : Pacific Fleet), 미 공군(PACAF : Pacific Air Force) 등 태평양지역에 위치한 육·해·공 3군의 사령부를 통합하여 총지휘하는 사령부를 미국의 태평양사령부(PACOM : Pacific Command)라 부르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령부 기구의 구조적인 유형상에서 "통합사령부(unified command)"라고 구분할 뿐이고 전력을 지칭할 때는 태평양함대(PACFLEET) 또는 태평양공군(PACAF)이라고 일컫고 "태평양통합군(Pacific Unified Forces)"이라는 경우는 없다. 한국전쟁 때의 미국 극동사령부(FEC : Far East Command)가 후(1959년대 후반)에 태평양사령부(PACOM : "페콤")로 증편되고 그(FEC) 예하에 있던 극동공군(FEAF : "휘이에프") : Far East Air Forces)은 PACAF("페케프")로 작전영역이 확장되었다. 그리고 육·해, 해·공 또는 공·육 등의 2개군이 합쳐진 사령부는 "합동(合同)사령부(joint command)"라 하고, 동맹국의 군대간에서 연합하여 운영되는 한반도의 한·미연합사령부나 유럽의 북대서양동맹(NATO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나토" 군사령부와 같은 기구를 "연합(聯合)사령부(combined command)"라고 구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통합군(unified forces)"이라는 용어는 "단일군(single-service forces)" 또는 캐나다(70,500명)와 이스라엘(17,500명)의 경우처럼 편식 상비군을 크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나라에서 70을 호칭하는 것처럼(예: IDF : Israel Defense Forces) "국가방위군(예: 가칭 "KDF" : Korea Defense Forces)" PACOM처럼 unified command의 사령관은 작전통제권만 행사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미 본토에 위치한 미국합참의장의 권한을 관할 태평양 지역현장에서 대행하고 있다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4>

3. 문민시대 국방정책의 투명성

일간지에 나왔듯이 보도된 이러한 "통합군" 얘기는 첫째 민주주의의 투명성(透明性)에 어긋나는 발상이다. 국방력의 감축과 군 구조개편은 항상 국가 안보정책의 거대한 변화를 유관부서의 전문가적 검토와 협조를 거쳐 심사숙고하지 않고 불측 그것도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영향력있는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여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적어도 현존 전력 규모의 3분의 2 이상을 삭감하는 대대적인 군비감축 정책이 해당 군의 책임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일방적으로 공개되는 배경은 과연 무엇인가? 어느 특정군의 편협된 이익추구를 위해서 특정군 출신을 주축으로 구성된 연구기획팀으로 하여금 은밀하게 본 사안을 연구하게 한 다음 제시하기 위한 전초단계로서 사연스레 언론에 흘린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데, 소위 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애드벌튼(advertisement balloon)" 아니면 "리키지(leakage) : 의도적으로 신문 등 언론 매체에 흘리기"인 것 같다. 즉 정책이 확정적으로 논의되기 전에 시안(試案)을 "세미나"나 기타 학술회의를 통해서 토론케 한 다음 이런 활동의 결과를 "매스컴"을 통해 보도케 하여 관련자들을 포함 일반 국민의 의견을 떠보는 식이다. 일간지의 보도가 있었으니 나흘이 지난 7월 4일 서울 캐피탈 호텔에서 한국국방정책학회 주관으로 열린 '97정책토론회'에서 "한국의 안보환경과 국방태세"라는 주제발표를 통해서 K대하의 S교수가 "현행 군 구조를 통합군 구조로 개편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통합군의 찬성론의 주장을 반대토론의 보도 없이 "리키지"된 것은 무엇인가 개운치 않은 여운을 남긴다. <5>

국가안보보장정책의 하위개념인 국방정책이란 상위개념인 국가대전략의 지침에 따라 현행에 규정된 군의 구성과 구조적의 테두리 속에서 국가방위를 위한 군사력의 구성과 운용을 다루는 것이다. 일의 순서로 보면 국방장관은 정치, 외교, 경제, 군사, 사회/심리, 과학/기술 등 국력의 제반요소에 관련된 부서와 사전 조율을 통하여 국가 차원의 총체적인 안보목표달성을 위한 국가대전략위원회의 지침부터 정밀하게 이에 대한 국가 통수권자의 재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합참의장으로 하여금 3군의 참모총장이 참석하는 군주회의나 확대전략합동참모회의와 같

은 군 최고정책의결기관에서 재가된 지침을 명확하게 설명케 하여 3군의 최고 책임자인 각군 참모총장들로부터 확실한 "컨센서스"를 도출한 다음에, 3군 관계요원이 균열있게 참여한 가운데 군 규모의 하향조정의 적정수준과 이에 따른 각 군의 임무와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조정된 병력을 총 "풀(pool)"화하여 군의 주어진 인력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서 군고유의 기능상으로 볼 때 이 군에서 무엇을 어떻게 운영 관리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일 수 있는가를 전문가적으로 공정(公正)하게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각 군의 임무와 역할에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기능적으로 어떠한 조정과 보완을 필요로 할 것인바부터 검토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군의 전비태세는 각 군의 보유 전력을 얼마만큼 전문가적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이창의적으로 지휘관리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고 따라서 법적으로 부여된 각 군의 원천적 기능(예: 공군의 경우는 항공기 운영)의 발휘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합참의 구조개편이 있었을 때 군 구조 연구부서를 신설기구화하였는데 이것은 "합참의장의 통합군에 대한 강한 소신을 비친 것"으로 보도되었었다. <6> 그런데 지난 여름에 일간지에 보도된 "통합군" 관련사항은 합참의장이 "참고"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업무절차를 내리고 관련 기획담당요원 이외에 개는 일체의 발언(특히 대외발언)을 금지했다는 소문이 있다. 이것은 국방부/합참참사 내뿐 아니라 각 군 본부요원에게도 적용된다고 한다. 즉 합참의장이 구두지시로서 "통합군" 계획안과 관련된 일체의 의견개진이나 논평은 허용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물론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의 발설은 군복무규율에 저촉되는 만큼 현역군인 각각의 소양과 자질의 문제이겠지만, 현역군인 중 최고고위직자인 합참의장의 권한은 3군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순리적으로 행사되어야지 투명성을 상실한 채, 관련 군의 정당함 의견개진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쓰여져서 안된다. 이것은 선진국형 시대사조(時代思潮)에 역행하는 일이다. 오히려 관련 군의 각 계층별 의견을 충분히 토론허 다음에 직접절차를 통하여 뚜렷이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할야 바람직하다.

군인(軍人) 그중에서도 지휘관(指揮官)은 무엇보다도 존경(尊敬)을 받아야 한다. <7> 군(軍)의 "리더십"은 자칫 잘못하면 단선적 경직성(rigidity)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소신이 뚜렷하고 유능하다고 알려진 지휘관이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경직성(硬直性)은 독단(獨斷)을 유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부하는 물론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 합참의장인 이용남(尹龍男) 육군대장은 지난 6월 "합참조직 대폭 개편" 때 "군내외에 축적된 전략가들의 출신(出身)을 집약하지 않고 현직자(現職者)의 독선적인 발상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일간지에 보도된 바 있고, 또한 "이같은 개편안은 윤의장 개인의 '독선'에 의한 것이라는 평을 받은 바 있다. <8> 문민정부의 군최고직인 지휘관이 이렇게 결정한 지휘관리를 하는 것은 불안한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 참모총장을 비롯하여 공군의 주요 간부들이 공군의 정체성(正體性)과 전통성(正統性)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군인복무규율(軍人服務規律)을 의식하고 소극적으로 공감할 것이 아니라, 전무조종사와 정비사를 포함한 공군(空軍) 전투병의 처(處)에 따라 문서(文書)로라도 상부에 일리는 적극적인 복무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실감(失望)스럽고 군의 사기(士氣)와 단결(團結)을 저해(沮害)하는 이러한 상황에 분노(憤怒)마저 느낀다. <9>

4. 전력증강정책의 공정성

둘째, 이렇듯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중대 국방정책의 대안안을 집권당에 있는 한날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집권당의

(6면 이음)

이러한 성의 없는 태도는 안보정책과 관련된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깊이 있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생기기며, 아울러 정책적인 주요 인사들이 국가 중요 정책을 다룰 때(概念)의 전도(顛倒)에서 오는 잘못된 문제인식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다. 문제사안의 본질적 심각성을 도외시하고 있는데 문제해결의 접근방법에서 공정성(公正性)을 기할 수 없다.

현재의 방만한 한국군의 규모(660,000명)와 지상군의 구성비율(해병대 포함 국군 전체의 86% plus)¹⁰⁾은 미국 '아이젠하워' 행정부(1953~1960)의 '뉴룩' 정책(New Look Policy)이 낳은 미국의 대한 군사정책의 부산물(副産物)임을 상기하여야 한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전쟁에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정적 손실을 경험하고 나서 중공의 인해전술에는 재래식 무기의 한계를 절감하고 핵을 동원하여 일찍이 전승을 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정책 전환, 즉 대담해보복전략(Massive Retaliation)에 의한 '새로운 시각의 정책(New Look Policy)'을 적용하려 했다. 군비절약(軍費節制)에 역점을 두고 있는 본 정책의 취지는 우방국의 방어를 위한 지상군 병력 동원은 피지원국(host countries, 예: 한국)에서 마땅히 미국은 다만 핵(核)으로 무장한 전략공군력(Strategic airpower) 등을 포함한 공군과 해군의 전력은 지원하는 것이었다.¹¹⁾

부연하면 현재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국군(國軍)의 규모와 편성은 한국전쟁 종식 직후 우리의 국민소득이 불과 \$100도 채 못되어, 군 운영을 전적으로 미국의 무상원조에 의존하여야 했던 때, 천수 미군의 접근 "공백부충(gap filler)"용으로 전적으로 미국의 세계전략(global strategy)에 입각한 "새로운" 시각에서 결정된 것이다.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의 방미(1954. 7. 26.~31.) 직후에, 미국의 대한 경제 및 군사 원조에 관한 한·미합의의정서(韓·美合意議定書: ROK-UN Agreed Minute of Understanding)에 명시된 한국군 총 병력 720,000명 - [20개 보병 사단을 근간으로 하는 육군 661,000명; 해군 15,000명; 해병대 25,000명; 공군 16,500명]은 다시(1958년) 630,000명 - [육군 565,000명; 해군 16,600명; 해병대 26,000명; 공군 22,400명] - 으로 재조정된 이래, 육군과 해병대의 병력은 거의 재조정이 없었다.¹²⁾ 개인 국민소득 \$100도 못되었던 때 미국의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책정된 한국군의 전체 병력 중 아직 548,000명이나¹³⁾ 되는 보병을 주축으로 한 육군의 규모는 우리가 OECD에 이미 가입했고 불과 수년 사이에 개인 소득 \$15,000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현실점에서는 대국민 실효성이 없음을 인정하는데 인식하여서는 안되겠다.

미국의 무상 원조가 끊어지진(1974년) 이미 20년 넘었고, 그 동안 \$100억 이상의 막대한

국고 예산을 국발력 개선을 위하여 투자하였는데, 각 군별 주요 율곡사업은 아래와 같다.

- (1) 전군의 C.I 사업, R & D 사업/ADD, KIDA
- (2) 육군: 한국형 탱크(ROKIT), 105mm/155mm포, 500MD 경병기, AH-1 Cobra 공격용 헬기, UH-64 다용도 헬기, CH-47 대형수송 헬기, 공수특전여단, 특공여단
- (3) 해군: 한국형 구축함(KDX), 해상초계기(P-3C), 잠수함
- (4) 공군: 222계획, H-TACC/K-COIC, 제공호/KF-5E/F, Peace Pheasant/F-4 Phantoms, Peace Bridge/F-16C/D, KF/KF-16C/D, KTX-I/훈련기, C-130H, CN-235, UH-64, H/CH-47, 비행장(청주, 중원, 서산), 레이더 사이트 등

〈註〉

1. 김정훈, "통합군체제 전환", 동아일보(1997. 6. 30.) p.2.
2. Ibid.
3. 필자는 공군사관학교 출신의 정규사관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의 공군의 주요 간부 가 될 사관생도들(39~44기 약 1,500명)을 겨냥하여 만든 공사교참모로서의 명예와 조국의 민족 앞에 충성심으로 이 글을 작성함.
4. 본 견해는 필자의 모교(Class 1981)인 미국공군대학원(Air War College)의 제1부 안보교과과정(Course I: National Security)의 강의에서도 그리고 그 후 몇 차례의 방문에서도 확인된 바 있음. 필자와의 인터뷰, Dr. David MacLassac 및 Professor Lawrence E. Grinter, US Air War College, Maxwell Air Force Base, Alabama, 1994, 12. 15.; 1995. 7. 19.
5. "군구조 개편해야 전후효과 증진 - 국방정책 토론회(85) - 뉴스속보. 연합 G1-532 S03-063 사회(785). (YONHAP) 970704 1635 SKT. 달일 공군총신이나 공군의 正體性을 주장하는 인사는 초정장을 받지 못함.
6. 황유성(黃有成), "합참 조직 대폭 개편: '합참'은 미래 왜곡 비판." 동아일보(1997. 4. 9.) p.5.
7. Samuel P. Huntington, The Soldier and State: Th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Military Relations(London, England: Belknap Press, 1985) p.7; 서진태, "軍事文化에 대한 省察," 공사총동창회보 제6호(1997. 5. 30.) pp.6~7.
8. 황유성(黃有成), "합참 조직 대폭 개편: '합참'은 미래 왜곡 비판." 동아일보(1997. 4. 9.) p.5.
9. 필자는 지난 봄에 있던 '97년도 제1차 구강중·참기정책 자문회의(1997. 4. 15.~6. 10. #202회의실)에 참석하여 "통합군"을 포함한 여타 사안에 대해서 필자가 발의한 내용을 국군의 "논평 리포트" 형식으로 문서화하여 국군본부 당국에 제출한 다음(1997. 6. 12.), 공군참모총장을 예방하고 debriefing(사후설명)한 바 있음(1997. 7. 21.).
10. IISS, Military Balance 1996/97(London, U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188.
11. John Foster Dulles, The Evolution of Foreign Policy, The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30: 761(January 25, 1954.), p.108; Russell F. Weigley, The American Way of War: A History of United States Military Strategy and Policy(New York, NY: Macmillan, 1976.) p. 402. "뉴룩" 정책과 관련된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국방정책에 관해서는 Saki Dockrill, "Cooperation and Suspicion: The United States Alliance Diplomacy for the Security of Western Europe," Diplomacy & Statecraft, 5:1 (March 1994.) pp.138~182를 참고할 것.
12. Appendix B to the Agreed Minute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Measures for an Effective Military Program, in Fifth Air Force History, 1 July 1954.~13. December 1954, ms., K-730.01 Jul-Dec 1954, v. 3. U.S. Air Force Historical Research Agency, Maxwell Air Force Base, Alabama: 김정열 공군중장(예)전공군총장, 김정열 회고록(서울: 을유문화사, 1993.) pp.447~459. 한국유전 직후 한국군의 규모와 편성에 관한 미국의 대한 군사정책에 대해서는 서진태(徐鎭泰) 공군중장(예)의 학위논문(영문) (Chintae Y. Tethered Falcon: The South Korean Air Force, 1946~1956. Kings College London/University of London, 1996, pp.169~186)을 참조 바람.
13. IISS, Military Balance 1996/97(London, U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188.

常識

최근 들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들도 미래전략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또 자문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나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청사진을 미리 그려보는 것이다. 불안정한이나 청사진을 그려보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 온 역사를 세 가지 '물결(wave)'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번째 물결은 약 1만년 전에 있었던 농업혁명으로 시작됐다. 사냥을 중심으로 방랑생활을 하던 유목사회가 농사를 짓는 농업사회로 이행된 것이 바로 이 시기이다.

둘째 물결은 300여년 전 산업혁명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아직 도 많은 나라가 진행 중이다. 가장 최근에 일어나는 변화는 지식혁명으로 대변되는 세번째 물결이다. 제3의 물결은 여러 측면에서 두번째 물결과 구별되고 정보화 사회를 말하기도 한다. 산업혁명을 통해 나타난 사회

에서는 동질화나 규모 극대화, 중압집중적 구조 등이 중요시됐다. 이는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빨리 좀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였다. 제3의 물결에서는 이같은 원칙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오히려 두번째 물결에서 강조된 원칙과 정반대되는 것들이 강조된다. 제3의 물결과 함께 나타날 현

실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나 기업의 조직 역시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 정부는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역할을 수행하기가 힘들게 됐다. 빠르게 변화하는 물결을 지금과 같은 경직된 구조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知識이 미래經濟 좌우

삼 중 하나는 직장에 대한 개념 변화이다. 근로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사무실에 나가야 했으나 앞으로는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몇몇 기업이 이같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을 이미 진행 중이다. 노벨사나 마이크로소프트는 각 가정의 통신망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또 BMW는 모든 자동차를 통신을 통해 중앙컴퓨터에 연결하는 일을, 모토로라도 각 가정에서 사용되는 가전제품을 서로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같은 세상이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닌

과거처럼 관료적이고 수직적인 조직구조는 점차 와해되며 수평적이고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끝 해체되는 임시적인 성격의 구조로 변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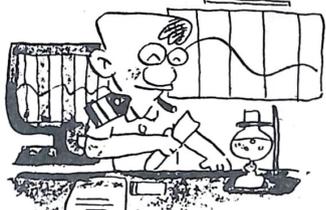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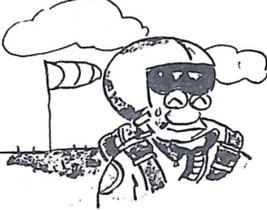
전통적인 경제이론은 새로운 변화를 이해하는데 이미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기존 경제학은 생산의 기본 요소로 노동 자본 토지를 꼽았으나 새로운 변화 속에서는 뛰어난 지식이 있다면 토지나 노동이 없더라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기존 경제학 교과서를 통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변화이다. 자본의 개념 역시 변화하고 있

다. 과거 한 기업의 가치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유형자산의 합으로 측정됐다. 그러나 점차 무형의 지적 자산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인텔사의 가치가 설비규모 따지지 않고 몇 배나 GM과 포드 두 회사주식의 시가 총액에 합한 것과 맞먹는 것은 자본 개념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두드러진 또 다른 것은 탈대량화이다. 과거에는 동질의 제품을 대량 생산해 소비자에게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객 개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이 이루어진다.

이미 니치(niche) 마케팅, 부티크(Boutique) 마케팅이란 용어가 경영학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분자 마케팅, 입자 마케팅까지도 활발히 거론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쌍방향 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제품에 대한 요구를 생산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생산자는 이들 정보를 수집, 관련 제품을 만들고 이를 고객에게 적합한 가격으로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또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이다. (編輯室)



廣開土王碑文의 倭에 대한 研究

— 軍事史學의 研究方法에 의한 —



李 鍾 學(공사 3기)
<서라벌군사연구소장>

• 머리 말

필자는 <高句麗軍事思想의 研究>(1992)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廣開土王碑文(차후 碑文이라 약칭함)의 내용을 소개해야만 했고, 거기에 등장하는 倭를 언급해야 했다. 그런데 碑文을 日本陸軍參謀本部의 酒匂景信 中尉가 1883年 가을, 日本으로 가져가서 연구한 지 1世紀가 넘었고 鄭寅普가 反論을 제기한 지 거의 半世紀가 흘렀지만 아직도 論爭이 계속되고 있으며, 또 이 문제는 古代倭倭關係史 定立에 있어서 핵심적 과제이다.

현재 日本에서 碑文의 해석에 의한 通說은 (1) 碑文은 4世紀 後半에 日本勢力의 韓半島 進出을 分명한 하는 확실한 史料이다. (2) 「辛卯年」의 부분은 「倭」를 主語로 하며, 倭가 百濟·新羅를 服從시켰다고 해석한다(任那日本府說의 근거). (3) 碑文 가운데의 「倭」는 大和朝廷軍, 日本軍 등으로 日本의 統一軍勢力로 한다. (4) 이런 것을 前提로 大和朝廷에 의한 日本의 統一은 4世紀 中葉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碑文研究는 주로 文獻史學의·考古學의·金石文의 研究方法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碑文의 倭는 직접 군사작전에 참가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은 軍事理論에 바탕을 둔 軍事史學의 研究方法로 究明하는 것이 더 妥當性이 있으며, 특히 32자로 구성된 辛卯年 記事(차후 記事로 약칭함)는 국제적 논쟁의 초점이 되어 왔다. 그래서 여기서서 記事에 대한 論說을 중점적으로 요약하며, 그 내용 가운데 「渡海破百濟 百濟國以爲臣民」의 倭는 바다를 건너 征服戰爭을 遂行했다는 뜻인데, 이 문제는 戰爭遂行能力의 有無의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碑文의 倭에 대한 軍事史學의 方法에 의한 研究가 없었기에 시도해 보는 바이다.

1. 碑文의 倭의 軍事理論的 解釋

(1) 記事: 百濟와 新羅는 예로부터 屬民으로서 조공을 해왔다. 그리고 倭는 辛卯年(391)에 바다를 건너와 百濟와 新羅를 破하고 臣民으로 삼았다(橫井忠直).

(2) 永樂 10年 庚子(400)에 王은 步騎 5萬을 파견하여 新羅를 구원하게 했다. 官軍은 背後로부터 급히 추격하여 任那加羅의 從從城에 이르니 城이 곧 함락했다... 倭寇를 크게 殲滅(大殺)시켰다.

(3) 永樂 14年 甲辰(404)에 倭가 帶方地方으로 침입하여... 倭寇는 潰散되고 虜虜자가 무수히 많았다.

이상은 碑文에 나타난 倭의 활동에 대한 결과의 내용이다. 클라우제비츠의 <戰爭學>(1832)에 의하면, 「戰爭이란 적을 굴복시켜 자기의 意志를 강요하기 위해 사용되는 暴力의 작용이다... 戰爭은 政治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手段에 지나지 않는다... 榮冠은 최후의 勝利者에게 주어진다.」고 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戰爭에서의 政治的 目的(領土·資源·人力 등의 획득)의 達成與否는 최후의 승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나폴레옹은 初戰에 승리하여 皇帝까지 되었으나 1815年 6월 워털루戰勝에서 敗北당하자 退位을 하게 되고 大西洋의 孤島 세인트 헤레나에 流配되었다. 日本의 關東軍은 滿洲事變을 일으켜, 1932年 滿洲國을 창설하여 만주를 지배했으나, 1945年 8월 무세한 蘇聯軍의 공격에 의해 大敗당하자, 滿洲國은 지상으로 사라지고, 關東軍은 포로가 되어 시베리아 강제노동 수용소에 연행되었다. 따라서 辛卯年(391)에 百濟와 新羅가 倭의 臣民이 되었다고 가정해도, 庚子(400), 甲辰(404)에 倭가 潰散되었기 때문에 「任那日本府說의 근거가 전연 될 수 없으며, 지금까지 文獻史學者들은 이 점을看過해 왔던 것이다.

2. 記事의 主語論爭

碑文의 雙鉤本을 日本으로 가져간 직후부터 參謀本部編纂課員(兼陸軍大學校教授)의 橫井忠直이 중심이 되어 상세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889年 6월 <會餘錄> 第五集이 碑文研究의 특징회의 형태로 간행되었으며, 거기서 記事의 釋文은 다음과 같다.

百濟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而倭以辛卯年來渡海, 破百濟百濟國以爲臣民。(<會餘錄> 第五集).

橫井忠直은 <會餘錄>의 「高句麗古碑考」에서, 「...辛卯年渡海, 破百濟·新羅爲臣民歟。是也...」(明治 21年 10月 橫井忠直識)이라고 적었다. 日本에서의 종래의 해석은, 「百濟(濟)과 新羅는 屬民으로서 조공을 해 왔다. 그리고 倭는 辛卯年(391)에 바다를 건너와 百濟(濟)와 新羅를 파하고 臣民으로 삼았다.」고 했다. 記事의 雙鉤本에 있어서, 日本에서의 通說은 倭가 主語이며, 3鉤字 가운데 마지막 한 자를 圖(倭)로 한 것은 橫井忠直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리라.

이처럼 日本에서의 정통적인 해석에 대해 근본적인 비판을 제출한 것이 鄭寅普이다(「廣開土王平安好大王陵碑文釋略」 1955). 그는 記事의 후반은 다음과 같이 읽었다.

倭以辛卯年來, 渡海破百濟百濟國, 以爲臣民(그런데 倭가 辛卯년에 와서, 바다를 건너서 파했다. 百濟이 新羅를 聯袂하여 臣民으로 삼았다).

이것은 「辛卯年에 와서」의 주어는 倭이지만, 「바다를 건너서 파했다」의 주어는 高句麗로 하고, 「파했다」의 목적어는 倭이다. 高句麗가 바다를 건너서 倭를 파하고, 百濟가 新羅를 연립해서 臣民으로 삼았다는 뜻이다. 朴時亨도 그의 저서, <광개토왕릉비>(1966)에서 鄭氏의 說과 동일했다. 한편 金錫亨은 그의 저서 <조기 통일 관계사 연구>(1966)에서 다음과 같이 해독했다.

而倭以辛卯年來, 渡海破百濟, 百濟國以爲臣民(倭가 辛卯년부터 와서, 바다를 건너서 百濟를 破하고, 新羅를 圖(倭)하여 臣民으로 삼았다).

그는 바다를 건너 주어는 역시 高句麗이지만, 「破」의 목적어를 百濟로 하였다. 즉, 高句麗軍은 百濟를 격파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더 나아가 新羅와 접촉하여 이 나라도 자기 편으로 끌어 들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記事의 후반에 있어서, 구독점을 어디에 찍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즉, 「而倭以辛卯年來渡海, 破百濟...」 「而倭以辛卯年來, 渡海破百濟...」이다. 王健群에 의하면, 日本의 일부 학자는 「來渡海」를 連續하여, 「來」를 동사로 보고 있으나, 이것은 옳지 않다. 두 개의 동사(來渡)가 이어져 있으나, 連動句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倭는 이미 朝鮮에 와 있는 이삼, 또 바다를 건너게 되면 뜻이 통하지 않게 된다. 와서 또 바다를 건너 돌아갔다면, 어떻게 百濟와 新羅를 격파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모두 「來」의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記事를 다음과 같이 3개의 문단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A. 百濟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
 - B. 而倭以辛卯年來
 - C. 渡海破百濟百濟國以爲臣民
- A의 주어는 高句麗이고, B의 주어는 倭라는 데는 異論이 없으나, C의 주어는 上述한 바와 같이 倭와 高句麗로 나누어져 논쟁의 초점이 되어 반세기가 되었다. 이 문제는 당시의 군사정세의 정확한 판단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당시 한반도의 역사 무대에 있어서 主役은 高句麗와 百濟였고, 그들은 3~5만의 병력을 동원하여 步·騎合作作戰을 구사하고 있었다. 한편 그 무대의 助役으로서 新羅는 전자에, 任那加羅·倭는 후자에 속하여 陪從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尺度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자 한다.
- (1) 碑文의 調査·拓本·寫本 등에 의한 忠實한 判讀
 - (2) 文脈이나 語法
 - (3) 事理(碑文內部에서의 事件의 因果關係)
 - (4) 史實(다른 資料에 의한 歷史的 事實과의 연관)
 - (5) 戰爭遂行能力

橫井忠直은 雙鉤本을 바탕으로 하여 C의 주어는 倭로 하고, 또 마지막 缺字를 圖(倭)로 判讀했으며, 그것이 日本에서의 通說의 元祖가 되었다. 그러나 雙鉤本은 1959年 水谷祐二郎이 지적할 때까지 碑文의 拓本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代用品이었다. 엄밀히 말해서, 雙鉤本은 拓本이 아니며, 그것은 학문적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이고, 缺字의 圖(倭)도 근거가 명확치 않다. 그리고 文脈과 語法은

무난하지만, 倭가 百濟·新羅를 파하고 臣民으로 삼았다는 것은 어느 史料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百濟와 倭는 우호·협력관계에 있었고 또 碑文의 6年 丙申(396)에 王이 친히 水軍을 거느리고 가서 百濟를 토벌했을 때, 백제 왕은 고구려 왕에게 妓客이 되겠다고 명세했는데, 倭總督이나 倭兵이 出現하지 않은 것은 事理에도 위배된다. 더욱이 9年 己亥(399)에 「百濟는 맹세를 위반하고 倭와 通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百濟가 倭의 臣民이 되어 있지 않다는 확실한 증거일 것이다.

371年 百濟왕이 3만의 軍隊를 지휘하여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 왕을 전사케 할 정도로 강력했다. 日本列島の 倭가 百濟·新羅를 파하고 臣民을 만들 정도의 戰爭遂行能力을 보유하고 있었을까? 日本史學界는 오늘날까지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해, 社會的·産業的·軍事理論的 海上勢力의 要因分析에 의해, 4世紀 後半의 日本列島の 倭가 大軍(적어도 3만명 이상)을 한반도에 출병시켜 征服戰爭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論證했다. 따라서 C의 주어는 倭가 될 수 없는 것이다.

鄭寅普는 C의 주어는 高句麗로 하고, 缺字를 圖(倭)로 했다. 그러나 1963年 廣開土王碑를 현지 답사한 朴時亨·金錫亨은 C의 3鉤字를 別圖으로 다루었다. 鄭寅普·朴時亨의 解讀에서 文脈·語法에는 缺字의 보충과 연관되어 애색한 점이 있지만, 金錫亨이 「高句麗가 渡海하여 百濟를 破하고...」라고 해석했다는 것은 碑文研究史上에 특기할 만한 공적이라 생각된다. 高句麗의 戰爭遂行能力에 관한 史料는, <國史記> 廣開土王 元年·3年·4年, 辰斯王 8年, 碑文의 永樂 6, 10, 14년에 提及되어 있으나, 高句麗가 事理·史實을 만족시키고 또 적속인 百濟·任羅加羅·倭를 격파했을 뿐만 아니라, 百濟·任羅加羅·倭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C의 主語가 마땅히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碑의 碑文 속에 提及되어 있는 것처럼 廣開土王의 勳績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 세웠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記事의 基本的 性格

記事의 論爭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계속되어 결말을 짓지 못한 주요한 이유는 최초부터 記事의 基本的 性格을 구명하지 않고, 恣意의 解讀·解釋을 먼저 하고 그 후 기본적인 性格을 합리화하려고 시도한 데서 온 것이라.

碑文에서는 王의 功勳은 年代順으로 記述되어 있고 또 戰爭의 對象, 原因, 征服方法, 作戰地域, 作戰形態, 結果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記事는 功勳記述方法과는 전혀 相違할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挿入과文的 性格을 나타내고 있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前澤和之가 最初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에 의하면, 辛卯年條에는 몇 가지 문장상의 특색이 있으며, 그것은 高句麗의 對 百濟·新羅·倭關係의 展開를 기록하기보다 王의 勳績을 明示하고, 후세에 전할 顯彰碑의 導入部로서 마련된 挿入文이었다 했는데, 이 견해는 경청할 가치가 있으리라.

「바다를 건너 百濟와 任羅加羅를 파하고 臣民으로 삼았다.」(C)는 것은, 六年丙申條와 十年庚子條의 征服戰爭의 結果에 대한 요약이며, 또 원인을 나타내는 結語사 「以」를 省略하고 또 緊要하게 丙申條와 연결시켰다. 따라서 丙申條의 主語가 高句麗이기 때문에, (C)의 主語는 高句麗가 되지 않을 수 없다.

「倭가 辛卯年에 왔다.」(B)고 했는데, 倭가 무엇때문에 왔고, 어떻게 되었는가 碑文에 기록되어 있다. 즉, 任羅加羅와 協同作戰으로 新羅侵攻을 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로 실시했으니 高句麗軍의 背後로부터의 渡海上陸作戰에 의해 撤退·大殺되었고(十年庚子條). 또 百濟와 聯合作戰으로 帶方地域에 上陸戰을 감행했으나, 大王의 군대에 의해 潰散되고



李源天(공사 5기)

매사냥의 역사와 우리의 교훈

매는 맹금류의 총칭이니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한데 음(Hawk)과 골(Falcon)로 대별했다. 주관이 뚜렷하여 성질이 사납고 고집이 세어 자유분방한 삶을 좋아한다. 눈은 진주처럼 맑고 밝으며 부리와 발톱은 병갈기처럼 단단하고 날카롭고, 질겅질이 날 수 있는 날개가 있고 체구에 비해 힘이 세고 싸우는 기교가 대단하다. 그래서 조류를 낚아들며 아래쪽의 먹이를 쫓아와 자신포도 윙글러 큰놈을 잡아먹고 살지만 지장을 하지 않으며 육식은 없는 편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매를 신령스럽게 여겨 숭상도 하고 나라나 군대의 위장으로도 썼고 혼의 문양이나 상표로도 썼다. 종교의 제수 조달을 위한 매사냥은 대개 7세기에서 9세기에 이르는 동안에 점차 쇠퇴해져서 궁중이나 경찰관 도표에도 쓰이고 Missile도 매의 명칭으로 호칭되는 것이 많으니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없다. 노루사냥·토끼사냥이라 하면 노루와 토끼를 잡는 일인데 매사냥이란 때를 사냥한다는 말로 많이 쓰이니 엇갈리기 쉽다. 정치인들이 울루세를 쫓아주고 고치하면 관사가 아닌 어린이에게 물어보라는 옛말과 그 뜻이 전혀 다른 논리다. 매가 높이 떠서 밑을 탐색하는 데서 조감(鳥瞰)·조감도라는 말이 나온 것인데 단군이 태백산에 내리고, 온조가 負兒岳에 오르고, 신라의 총장들이 ○○寨에 내렸다는 것도 조감을 위해 오르내린 것이고 미사일도 초기에는 조감에서 생겨난 문화다. 매가 짐승을 잡는 재주는 실로 신출귀몰하다. 그래서 인류최초의 개공방간 스포츠인 매사냥에 연연하지 아니한 왕후장상이 드물었으니, 매에는 철새류가 많아서 잡기도 어렵고 환경과 먹이를 구비하기가 어려워 병이 많았고 약을 만들어 치료하고 길들이고 훈련시켜 부리는 데는 자급과 인력이 너무 많이 드는 데다가, 범까지 잡았으므로 그 명맥이 거의 끊어졌다. 그러나 매사냥은 먹이사슬의 일환이고, 지금의 기술로는 부화도 되고 기르기가 쉬워졌는 데도, 낚알을 마구 쏟아내어 국토를 오염시키는 수란점의 충포를 면해 준 나라가 매사냥을 못하도록 했다던 누가 그것을 납득하겠는가. 고인돌은 때와 새의 관계였다. 그 조화과 국민 관계로 비유했다. 그 조화 법 앞의 평등론은 끊임 없는 현실은 아니다. 有錢無罪라는 말은 있어도 有權無罪라는 말이 없고, 수십 개의 사과상자에는 조건이 없고 앵두꼭지에 불과한 조화에는 조건이 없는 현실을 민주화로 보겠다는 거. 이것은 매와 새의 생

태를 同化시킬 수 없듯이 우리 인류의 영원한 숙제로 남을 것이다. 중동이나 구주사람들은 매가 타스켄트 소생이라 하고 극동사람들은 곤륜산 소생이라 하니 중앙아시아에서 생겨 동서로 퍼졌고 그 동쪽 가닥이 한국을 통하여 일본에 전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메소포타미아의 Khorosabad 유적에서 Henry Layard 등이 발견한 암각화는 BC 1700년의 그림으로 추정했고, 일본의 河内縣誌에서는 중국의 夏나라 때(2250~1776 BC)에 매가 왕에게 공납된 것으로 추정했으나 그 연대가 비슷하다. 독일의 황제 프리드리히 II세가 1247년에 쓴 「매사냥의 기술(De Arte Venandi Cum Avibus)」은 서구권 대표하는 고전이고 우리나라의 군부관서인 13세기 李孝年이 1325년경에 쓴 「음골방」은 동양을 대표하는 고전이라 하겠는데 매의 특징·성품·사육·병태·제약·치료·일화·명칭·賦詩 등이 실려 있다. 여기서 關동지역의 매에 관한 기록들을 더 추가해 보기로 한다.

중국의 魏나라 文帝(679~667 BC)이 공물로 받은 송골매(海狗)로써 沙漠에서 쫓을 사냥한 이야기 기록이 실려 있었으며 매사냥의 기원이 매우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魏나라의 文帝(160~157 BC)는 매로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즐겨 먹었고, 唐나라의 태종 李世民(재위 160~157 BC)은 元臣 魏徵에게 물길까봐 쌀밥을 공문포 소매 속에 숨겨서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唐書 百官志에 의하면 사냥 조직이 실로 방대하고 주방·음방·골방·狗坊 등으로 나누어 관리했으나 唐書 > 元나라에 비할 바는 되지 못했다.

몽골 > 元나라의 사냥 조직은 더욱 방대했고, 심지어 호랑이·표범(치타)·삿돼지와 각종 개와 맹금류들이 거의 말라되었다. 동방견문록(Travel of Marco Polo)에 의하면, 황제가 사냥을 나갈 때는 5천 마리의 조렵공들과 1만명의 병력이 동원되었다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매사냥도 13세기에 元나라의 내침으로 더욱 확산된 것이다.

고구려가 4~5세기에 남진 고분의 변화에는 수렵에도 남긴 있는데 장천 1호 고분의 山林수렵도 속에 매로 쫓을 잡으려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백제는 일본에 매와 개로 사냥하는 기술을 전수했는데, 눌지왕 18(434)년 9월에 흰매를 신라에 보낸 적이 있고, 阿莘王(579~631)이 를 무렵에 매사냥을 즐겼고, 法王은 599년에 살생을 금하는 영을 내려 무렵에서 기르는 매를 놓아주도록 하고, 어구까지 불사르게 했다고 하니 실로 거대한이다.

신라의 元忠은 매에 쫓고 까투리가 새끼 무리를 품고 파를 흘리며 우물 속에 숨어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절을 지어 靈鷲寺라

했다 하나 그렇다면 靈鷲寺라 했어야 마땅하고, 지명어원에도 사인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흥미할 일이다. 선덕왕 때(780~784)에 靈助(혜공)가 매를 길렀고, 경명왕(917~923)이 사냥을 하다가 매를 잃어 仙桃聖母에게 부탁하여 매를 찾은 적이 있고 答나라 와도 매의 교관이 많았다.

발해(699~926)는 개원 17(792)년 13(995)년에는 고려에서 요나라에 매를 보냈다. 한때 북방 사람들이 함경도에 와서 매를 잡아가는 일이 많아 송화강과 함경도 사이의 길을 맏길(음로)이라 했는데 鍾城 사람들이 그 길을 막자 천수가 벌어지기도 했다는 기록이 海동역사·金史世宗 등에 나온다.

고려는 天成 4(929)년 8월에 後唐에 매를 보낸 五代史의 기록이 최초이고, 충렬왕(1275) 원년 5월에 「음골 興湖」라는 기록으로 보아 이 무렵에 음골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뒤에 麗陽郡이 단 부서도 승격하여 정3품의 상장군을 두어 관장케 했다. 그래서 수리경(晉經: 鷲經의 이두식 표기)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음골방이 등장하였을 것이다. 1322년에 충목왕 원년 북원면 椒水(금침 椒井)에서 매사냥 결연대회가 있는 음골방의 기록이 세계 최초의 것으로 추정된다. 여지승람 정원군조에 의하면 후추같이 났고 차가워 목욕을 하면 만병이 나고, 새죽·새조가 행차했다 하고 이 房文仲과 李承詔의 題詩도 실려있으나, 무질서한 지하수 개발로 오염을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이곳 남일면 쌍수리(雙樹里)라는 동명의 소리가 짙고 雙鷲와 같은데, 동공롭게도 매와 수리의 같은 공군사관학교가 들어서고 여생도들 도입되었으니 진짜 수리가 짙을 지어 영랑의 노래를 펼 그날을 기다려 보리라. 「수리」란 복수리의 약칭인데 본래 서역에서 몽골 지역으로 들어와 Godor로 호칭된 것을 漢字로 郭秀(곽수)로 음역되고 우리 나라에서 꼭두각시라 한 연희를 대머리 여자의 인형이다. 그래서 수수리는 곧 대머리(禿頂)란 말이니 실제로 수리는 정수리에 털이 거의 없다. 「雙樹里」는 역명의 전용이 아니라 그 반대다. 참은 살: 살>流川>삼>삼으로 접변된 말이고 樹는 越의(越의)라는 옛말 「남우>나무」의 표로 참나무>眞木洞(眞木洞의 풀)의 나무와 같은 訓법이다. 따라서 雙樹리는 개울인데, 雙樹리는 개울밖(峯)에, 眞木洞은 역참밖에 있는 마을이므로 붙은 지명들이다. 개울을 矢·箭(살)·狸(삼)자로도 혼차하는데 그 변형이 雙자다.

조선시대는 매의 기록이 너무도 많이 생략하였으나 매의 명칭과 분류가 조금 세분화된 경향이다.

일본에서는 應神 2(271)년에 系媛妃가 尊崇(尊崇)을 낳았는데 尊崇으로 약칭했으니 매

(하야부사)라는 뜻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祭官: 舍人是 「尊崇」이라 하눌에 날아 올라 祭場 위의 2차 새를 잡으소서라고 빌었다. 2차 새를 잡으소서(神風) 특공대 대전 때에 카미카제(神風) 특공대가 탄 전투기를 하야부사(はやぶさ: 尊: 매)라 했으니 尊崇자가 부활한 것이다. 앞에 나온 神風(かみかぜ)이란 것은 1281년 5~8월 사이에 元の 함대가 일본을 침할 때에 전함들을 파괴시킨 태풍을 일컫는 호국神이 일으킨 바람이라 하여 생긴 말이다. 細島女·車彌子·卯生女 등으로 호칭되고 있는 神功女皇 47(247)년에 백제에서 매를 보냈고, 仁德 43(355)년에 공납된 매는 백제인 酒君이 백제에서 俱知라는 매라 하여 훈련시켜 쫓을 俱知라는 매라 하여 麗陽郡에 설치되었고, 또 같은 해에 백제의 사신 米光과 袖光이 일본으로 와서 매와 개로 사냥하는 기술을 전수했다는 기록이 續群書類 543에 실려 있고, 江戶시대(1603~1861)에는 狩衣라는 매사냥복이 있었는데 예복으로도 쓰였고, 仁祖 14(1637)년에 金東溟이 쓴 해사록에는 12월 13일에 江戶에 머무르니 일본의 養鷹師 林道春이 養鷹方を 갖고 와서 물었다. 星山君 李兆年이 지은 것이었다는 기록이 있어 음골방이 일본의 매사냥 교본으로 쓰였음을 엿볼 수 있다. 繪本鷹かき에는 백제인 酒君의 肖像이 있는데 容容라는 서명이 西遊道人 李李符(1478~1534)의 그림이라 추정된다.

공사 5·6·8·9·11 기생가에 쓰인 보라매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태어난 해는 黃>紫(보라)색이었다고 해마다 털을 갈아 赤>靑으로 변하므로 1년생 매인 갈지개(加乙之介)를 색상에 따라 붙인 명칭인 것이다. 또 경솔하게 여뵈려다가 그 뜻을 자주 깨는 딸뵈려뵈려라 하는데, 본래 伐達(伐達)이란 매는 부지런하나 발가락의 힘이 약해서 잡은 먹이를 잘 놓쳐 생긴 말이다. 아침의 등지가 저녁에 적이 되어 이할질산하여 체를 다루는 輕鷹(輕鷹)을 古賢들은 가장 경계했는데 또 지금의 정치현상은 어떤가? 또 새끼뵈려라 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매를 놓았다가 잃었을 때에 날음이 잡으면 주인을 찾아 물러가니 심도름 불같은 것은 잃게 잡아 주인이 이름을 쓴 명찰을 새침, 또는 꼬리깃에 매어 다는 명찰이므로 懸朱라고도 하는데 새를 잡은 사람이 그 새침을 매어 버리고 자신의 매라 고 속이는 데서 생긴 말이다. 도의가 무너지고 義와 불의가 도취된 즈음은 평강이 또 懸朱라고도 하였고 OK했다면 내심이 다르고, 경제논리에 맞지 않아 회장 물러나란다. 이렇게 논리적 사유체가 무가진 언어들이 국면을 팔고 무용하는 판이니 나라가 잘될까 걱정인데, 매의 그늘 밑에는 새 매들은 입까지 열어놓았는지 썩 소리를 못한다.....

(8면 이음)
또 많이 살상당했다(十四年甲辰條). 따라서 倭는 大潰>潰敗당한 倭寇로서 高句麗의 臣民으로 들 수 없는 존재였다. 倭의 實體는 海賊의 集團의 성격을 지닌 「對海國」, 즉 對馬島이며, 동원가능한 兵口數는 1千名 정도로 추정된다.

• 맺음 말

碑文에 나타난 倭, 특히 記事를 日本史學界의 通說, 즉 「倭는 辛卯年(391)에 바다를

건너와 百殘과 新羅를 破하고 臣民으로 삼았다.」고 가정해도, 最終決戰에서 倭는 潰敗당했기 때문에 전연 「任那日本府」說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軍事理論의 觀點에서 밝혔고, 또 記事는 史實을 수용한 다른 編年體의 本文과 전연 相異하다.

그리고 辛卯年 記事의 後半(C)의 主語는 戰爭遂行能力의 観点에서 본다면, 高句麗이며, 3缺字는 高句麗가 渡海上陸作戰으로 破한 敵側은 百殘과 任羅加羅이기 때문에 國號가 不明이며, 거기에 是 國號가 補充될 수 없는 이유를 명시했다. 倭는 辛卯年에 왔으니(B),

戰國에 개입했지만, 大潰>潰敗당하고 말았던 倭寇에 지나지 않았다. 記事의 첫머리(A)는 414년을 基點으로 하여 高句麗 南進政策의 名分과 意義를 부여하고 또한 丙申年부터 丁未년까지의 功績內容을 총괄적으로 요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辛卯年 記事의 基本的 性格은 丙申年부터 丁未년까지의 功績內容을 총괄적으로 요약하고, 그것의 名分과 意義를 부여하는 내용인 동시에, 廣開土王의 兩進政策의 意志를 계승한 長壽王의 決意와 當爲를 표명한 獨立的인 挿入으로 생각된다.

教 養

世上을 幸福하게 사는 백가지 方法

1.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그날이 그날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2. 실패 속에서 성공을 찾아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실패를 실패로 끝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3. 쓸데없는 일에 바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중요한 일에 바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4. 음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음식타박을 하며 먹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5. 갈을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받을 것만 기억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6.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 불의와 대결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7. 세상이 아무리 험난해도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살아야 할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8. 남들이 뻔히 아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9. 불행이 닥칠 때만 하나뿐, 부처님, 조사를 찾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항상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10. 자신을 반성하며 고쳐 나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11. 신나게 일하고 신나게 노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일하는 것인지 노는 것인지 판단이 안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12.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답을 찾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방법이 없다고 손을 들어 버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13.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모두가 외면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14. 내일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준비를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15. 미래를 위해 절약하며 저축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있는 돈을 쓰기만 바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16. 넓은 아파트에 살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작은 임대 아파트에 살지만 늘 웃으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17. 인생을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18. 뒤에서 욕을 하는 소리를 듣고도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 소리에 흥분해서 펄펄 뛰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19. 사촌이 땅을 샀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두근두근 배가 아픈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20. 건전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악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21. 한쪽 팔을 잃고도 두 다리와 한 팔이 있음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손가락 하나를 잃고 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괴로워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22. 진급에서 누락되어도 기회는 또 온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나의 인생은 여기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23.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마음속에 복잡한 욕심으로 가득 채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24.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장식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원망과 저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25. 배우자와 싸워 이기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26. 아침에 밝은 햇살이 우리를 반겨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지겨운 하루가 시작된다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27. 살이 쪼서 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체중에 별 신경쓰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28. 돈을 밝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29. 도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도피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30. 슬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밝고 신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31. 나이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모르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32. 약자를 돕는데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약자를 짓밟는데 쾌감을 느끼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33. 일급번 쓰러져도 여덟번째 일어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한번 쓰러지면 영원히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34. 은혜를 은혜로 갚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은혜를 원수로 삼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35. 50만원으로 생활해도 10만원이 남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500만원으로 생활해도 100만원이 부족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36.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생각없이 하루를 소모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37. 읽기 위해 책을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장식하기 위해 책을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38. 공부하지 않을 정도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호의 호실한 돈이 없음을 원망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39. 어렸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왜 사람으로 태어나 이 고생인가 한탄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40.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41. 좋은 글을 읽으며 메모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42. 잘못한 반성하고 곧바로 개선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후회할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43.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큰 것에도 불만을 갖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44. 남이 보지 않는 데서 선물을 행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남이 보는 데도 악을 행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45. 서로 안맞아 헤어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서로 맞이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46. 잠자리에서 그날 있었던 일중에 좋았던 것만 생각하고 잠을 자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괴로웠던 일만 떠올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47. 누구에게나 인성이 밝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48. 환경을 맛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49. 지금은 힘들어도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도 아무런 꿈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다.
50. 상대방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함께 보아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만 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51. 돈이 없어도 뜨거운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돈이 많아도 마음이 싸늘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52. 실연을 당했어도 사람 대상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버리고 떠나고 사람을 두고두고 원망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53.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불평하며 먹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54. 마음까지 화장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얼굴만 화장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55. 결과보다 과정에 충실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결과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56. 가슴을 펴고 당당히 걷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휩쓸이 비실비실 걷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57. 모든 것을 다각도로 관찰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부분만 보고 전부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58. 잘될 이유를 찾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안될 이유만 찾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59. 자신감으로 일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두려움감으로 일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60. 프로답게 일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포로처럼 일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61. 공과 사가 분명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공사를 가리지 않고 일에 일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62. 할 일이 많음을 고맙게 느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일이 많음을 불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63. 결승과 양보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교만과 거만의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64. 스스로의 힘으로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남의 도움만 기대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65. 목소리가 힘차고 생기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목소리가 개미 소리처럼 기어 들어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66. 모든 일에 용두사미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시작에 미미해도 끝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67.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단합을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능력이 부족해도 단합을 잘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68. 언제나 별레침은 열굴을 하고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항상 즐겁게 미소짓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69.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70. 돈을 쓸 때, 안써도 좋을 때 마구 쓰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꼭 써야 할 때만 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71. 할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즐거운 꿈을 꾸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72. 몸이 원하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입이 원하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73. 좋은 의견이 나오면 해보자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해보나마나 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74. 질서를 지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무질서를 보여주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75. 배에 힘을 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목에 힘을 주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76. 힘차게 출발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누장부리며 어슬렁거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77. 할 일을 다하고 천명을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시작도 않고 요령만 부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78. 남에게 신뢰감을 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불안감을 주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79. 상대방의 장점을 찾으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약점을 찾아내려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80.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약속 여기기를 막먹듯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81.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맞장구를 쳐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82.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오직 유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83. 배를 애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어둡고 우울한 말만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84. 얼굴에 화기를 띠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살기를 띠고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85. 보람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의무로 일을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86. 잘못된 것이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네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11면 계속)

健康

老化防止 열쇠는 자신에게 달려 있다

건강한 장수와 영생! 이것은 모든 인간이 오래 전부터 추구해온 가장 큰 소망이다. 건강이 따르지 않는 장수와 영생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허무한 것이다. 학자들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 수명을 120세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최고 수명인 120세까지 사는 것이 일차적인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인간의 수명 - 과연 끝이 있는가?

현대에 있어 가장 장수한 사람은 1970년에 168세로 사망한 '사발린'이란 여성이다. 미국의 최고 수명은 112세, 캐나다는 115세, 일본은 1986년에 사망한 '이즈미 시키치요'라는 사람으로 120세로 공인되어 있다. 세계에서 현존하는 최고 연령자는 프랑스의 칼렌 여사로 117세라고 한다. 가까운 장래에 노화에 대한 연구가 결실을 이루어 인간의 최고 수명이 약 150세, 평균 수명은 100세에 이를 것으로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대로 간다면 머나먼 미래에 인간의 최고 수명은 수백 년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건강한 장수와 영생!

이것은 모든 인간이 오래 전부터 추구해온 가장 큰 소망이다. 건강이 따르지 않는 장수와 영생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허무한 것이다. 인간은 대부분 건강하게 태어난다. 학자들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 수명을 120세로 보고 있다.

그러나 출생시에 기대할 수 있는 평균 수명은 실제로 채 여든 살도 되지 않는다. 란스 세일 박사는 '일생 동안만 백수의 시체를 해부해 보았지만 천수를 다하고 제명에 죽은 사람은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최고 수명인 120세까지 사는 것이 일차적인 우리 모두의 바람이며, 나아가서는 최고 수명 이상으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다.

노화의 자각 - 느낌이 다르다!

'나도 이리저리 나이를 먹었구나.' 하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역시 나이 탓이야.' 하고 느끼게 되는 때 이것을 노화의 자각, 또는 노성 자각이라 한다. 빠른 사람은 40세에서, 늦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50대 후반에는 노화를 느끼기 시작한다. 어떤 경우에 노화를 느끼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과 개인차가 있지만 나이 먹음과 동시에 느끼는 종류가 많고 지고 정도가 심해진다. 신체의 변화에 대한 것, 마음의 변화에 대한 것, 사회생활 속에서 자각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세 전후의 젊은 사람들이 거울을 통해 자신의 젊음을 느끼듯이 40~50대에 이르면 늙음을 느

낀다. 주름살이나 반점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머리카락도 적어지고 고 회색 된다. 피부에는 사마귀가 생기기도 한다. 눈에 보이는 여러 곳에 늙음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다.

노화에 대한 인식 - 변해야 한다!

그러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고 수명의 절반밖에 살지 못하고 일찍 공동요지로 향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건강과 노화에 대한 인식과 지식의 부족과 실천력의 결여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과 장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지식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건강과 장수를 위한 실천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인생의 성공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바로 건강전략인 것이다. 우리가 건강한 장수를 원한다면 우선 노화의 신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아직도 노화가 완전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화를 극복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속설 등에서 사로잡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무엇인지 언저리 별별 희한한 것까지 비방들을 무분별하게 따라가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화 자체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 예전에는 노화하면 무조건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지금은 예상이 가능하고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 왔던 노화의 2/3는 실제로 진정한 노화가 아니라 사실 입증되었다. 우리가 생각했던 노화의 1/3 질병을 노화로 잘못 인식한 것이며, 다른 1/3은 신체와 정신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진정한 노화는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믿어 왔던 노화현상 중의 1/3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이가 든 사람들의 모든 증상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서 무조건 어쩔 수 없는 노화현상으로 조려서는 안된다.

여기에 흔히 인용되고 있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102세 먹은 노인이 어느날 의사를 찾아와서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하였다. 이때 의사가 환우의 호소를 무시하고 "아니 지금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병원에 오셨습니까?"라고 말

하자, 이 노인은 "나의 왼쪽 무릎 역시 102년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아픈 적이 전혀 없었소."라고 의사에 즉시 반박하였다고 한다.

노화와 건강에 대한 지식 - 알아야 한다!

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 다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화와 건강에 대한 지식이다. 건강은 값비싼 보약이나 시중에 뿔뿔고 있는 건강식품에 있지 않다. 장수는 녹음이나 인삼에 있는 것이 아니다. '등잔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처럼 건강의 진리는 아주 평범한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건강과 장수의 비결은 자연 속에 있으며, 금전이나 요행이 아닌 우리의 실천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현대 과학자들은 '노화를 방지하는 비결의 열쇠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결론에 이미 도달하였다.

일본 총리부 노인대책실이 1982년에 실시한 '노인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 조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태국의 5개국의 노인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가족, 취업상태, 사회참가, 이웃과의 교류, 친구, 노후생활, 종교신, 행복감 등을 비교한 것이다. 이 가운데 '당신이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느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거나 자유롭게 말해주세요.'라는 질문이 있다. 이에 대해 남녀 모두 '자기가 건강하다는 것, 가족이 건강하다는 것'을 으뜸으로 꼽았다.

오래 전에 국내의 한 방송사가 '한국 성인의 의식구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 결과 한국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건강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인의 건강추구행위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하였다. 각 가정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상당한 돈을 투자하고 있으나 실제로 의사가 인정하고 추천할 만한 건강추구행위는 고작 5% 이하였다.

위의 두 가지 연구결과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한국인들은 건강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건강해지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이 있어서는 대부분이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질병의 원인 -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질병은 유전(15%)과 환경(15%) 및 인생에 걸친 잘못된 생활양식(70%)에 의해 발생한다고 한다. 여기서 유전적인 원인은 조상을 탓해 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환경적인 원인은 정부나 사회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잘못된 생활양식을 고쳐 건강장수 120세를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실현된다면, 우선 질병의 70%는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노화와 함께 성인이 되어 생기기 시작하는 성인병이 노년기에 이르르면 더욱 증가하게 마련이다. 퇴행성관절염, 고혈압, 청력장애, 심장병, 시각장애, 치매(노망), 당뇨병 등이 대표적인 노인병이다. 이러한 질병들은 노화 그 자체보다는 일생 동안 습관화 되어버린 잘못된 생활양식이 쌓여서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질병의 원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세포의 노화 - 여기에 수명 연장법의 열쇠가 있다!

장수의 결정적인 요인은 세포에 있다. 평균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도 세포이다. 따라서 노화를 방지하는 결정적인 역할도 세포가 하는 것이다. 세포야말로 생명의 원형이다. 그 세포가 건강하면 건강장수할 사람은 더욱 오래 살게 되며 신체의 모든 기관들은 그것을 더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레오나드 헤이플릭 박사는 다음과 같은 실험 결과를 발표한 일이 있다.

그것은 모든 생물체의 최고 수명과 그 수명을 연장시키는 세포의 배가제생 횟수와는 서로 밀접한 함수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세포가 배가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헤이플릭 박사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의 최고 수명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켈빈트 박사는 노화에 대한 마이애미 심포지엄에서 헤이플릭 박사의 이론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노화와 장수의 미래 - 가능성이 보인다.

자기 자신은 과연 몇 살까지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누구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양친과 친가와 외가의 조부모가 사망한 때의 나이를 먼저 조사한다. 양친의 사망 나이를 각각 두 배로 하여 거기에 네 명의 조부모 사망 나이를 더하여 그것을 8로 나눈다. 이때 전사자, 사고자는 제외하고 아버지 전사했을 경우에는 모친의 사망연령을 배로 하여 거기에 조부모의 사망시 연령을 더하여 이 경우에는 6로 나눈다.

그리고 마지막에 4를 더하면 그것이 바로 본인이 살 수 있는 연령이다. 여기에서 4를 더하는 것은 세대자에 따라 평균연령이 늘어났다는 의미이다. 물론 정확한 방법은 되지 않으며 참고가 될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화의 실험을 벗겨내어 건강한 장수를 실현시켜 보려는 각종 연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0면 이음)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87. 지난날의 얘기만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88. 언제나 불행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언제나 싱글벙글 웃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89. 어둠 속에서 밝음을 찾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옥에서 티를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90. 섬세했던 일을 마음속에 평생 담고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고마웠던 일만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91. 행복한 사람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

라보기 때문에 언제나 희망에 넘치고 불행한 사람은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언제나 암담해진다.

92. 알맞게 술을 마시고 일어나는 사람은 행복하고 3차, 4차 정신없이 해매는 사람은 불행하다.

93. 시간을 10배로 늘려 쓰는 사람은 행복하고 1/10로 줄여서 쓰는 사람은 불행하다.

94. 내일을 위해 오늘을 참고 지내는 사람은 행복하고 오늘을 위해 환락에 빠지는 사람은 불행하다.

95.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행복하고 말로만 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96. 자기가 세운 목표를 일괄성 있게 밀고 나가는 사람은 행복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뜯어고치는 사람은 불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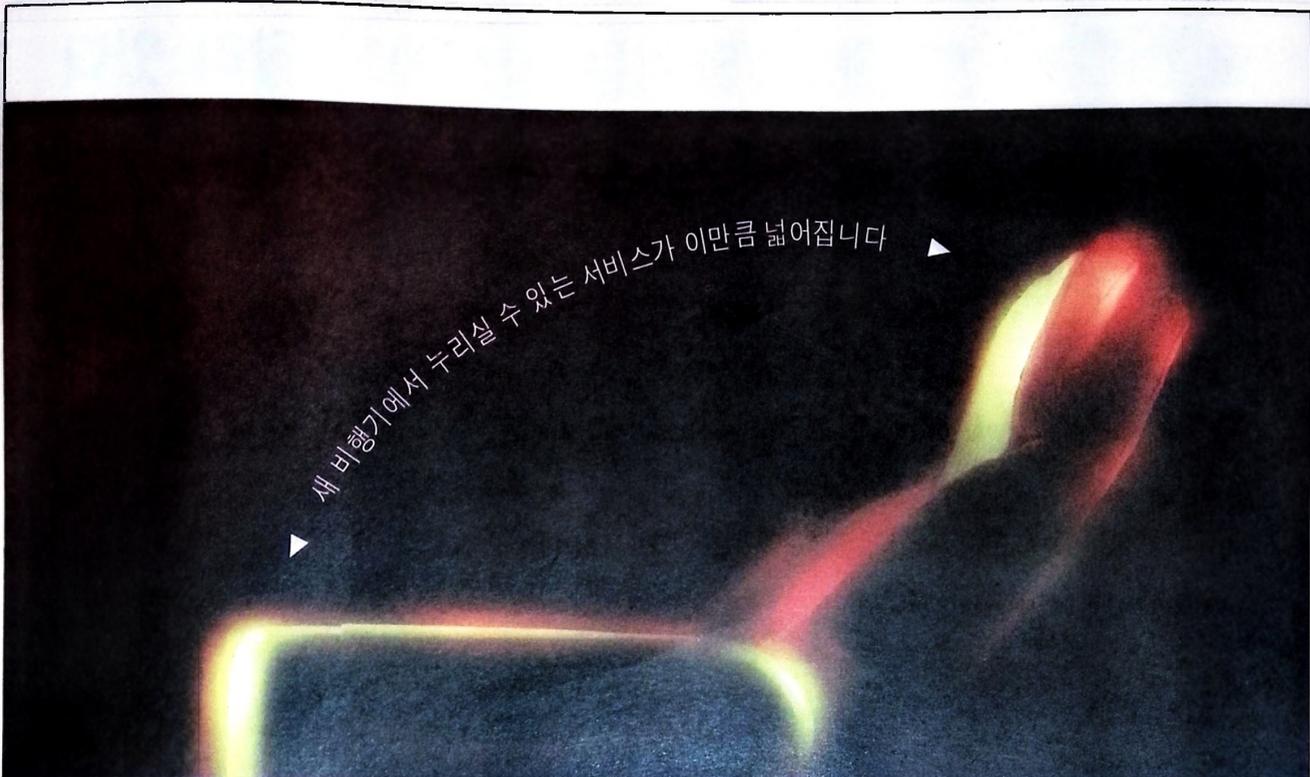
97.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후한 사람은 행복하고 자신에게는 후하지만 남에게는 가혹한 사람은 불행하다.

98. 앞장서서 남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행복하고 마지못해 남에게 끌려 다니는 사람은 불행하다.

99. 웃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웃사람 앞에서 살살 거리면서 아랫사람을 달달 부는 사람은 불행하다.

100. 전진할 때와 후퇴할 때를 아는 사람은 행복하고 전진해야 할 때 후퇴하고 후퇴해야 할 때 전진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편집자**)



▶ 새 비행기에서 누리실 수 있는 서비스가 이만큼 넓어집니다 ▶

새 비행기만의 '국내선 비즈니스 클래스' 품격높은 서비스를 느껴보십시오.



새 비행기만 운항하며 항공서비스 고급화를 이끌어온 아시아나 항공 - 국내 최초의 '국내선 비즈니스 클래스'로 국내선 항공서비스의 고급화 시대를 엽니다. 더욱 편안하고, 품격높게 모시는 '국내선 비즈니스 클래스'로 새 비행기만의 앞선 서비스를 느껴보십시오.

